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10일(월) : 주간회의(11시)
- 10월 12일(수)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노사 기정진 연보(강사: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2호)
- 10월 13일(목)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최제학 습재실기(강사: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10월 15일(토) : 인자요산 소모임

## ■ 연구원 행사 안내

###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연구원 소모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인자요산(仁者樂山)' 에서 전북권에 있는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10월 15일(토)** 에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 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잊고 선선해지는 가을 산행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미리 연락주시면 됩니다.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장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



<망해사 낙조 바라보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다가 될 수 없는 슬픈 호수>

김제·만경평야를 이 동네 말로 '징계 맹경 외애밋들' 이라고 한다. 김제 만경의 너른 들을 일컫는 말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절' 망해사(望海寺).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김제시 만경읍을 거쳐 진봉면으로 가는 그 길은 들판 가운데로 나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정점, 만경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이다.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광활면이 인접해 있는 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수명을 다한 심포항 인근에 다다른다. 그 길이 산자락으로 향하며 야트막한 구릉 사이로 망해사가 나타난다.

망해사는 작은 절이다. 전각이라 해 봐야 주불전인 극락전과 낙서전(樂西殿), 종각, 그리고 요사가 전부다. 하지만 참으로 절다운 절이다. 그 절다운은 낙서전(樂西殿)으로 하여 선명해진다. '해 지는 서쪽을 기꺼워한다' 는 이 소박함 앞에 사뭇 경건함을 느끼게 된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망해사는 더 이상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 아니다. 이제는 바다가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절이 되고 말았다.

망해사가 등을 기대고 있는 진봉산은 구릉에 가깝다. 해발고도라 해봐야 72m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산기슭의 우람한 소나무들이 워낙 울창하여 깊은 산처럼 느껴진다. 진봉산은 예로부터 대단한 산이었다. 대동여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경현 조에 진봉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진봉면의 이름도 이 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동진강 방조제를 쌓아 만든 광활면 간척지가 일본인들의 수탈 행위였다면, 21세기의 새만금 방조제는 문명의 수탈이다. 망해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후대의 사가들은 문명의 독으로 막힌 새만금의 바다에서 21세기의 비극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나마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물을 가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의 끝없는 생명력에 희망을 걸어 본다.

## ■ 연구원 소식

### ○ 전북역사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학술포럼

: 지난 10월 7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08호에서 학술포럼이 있었습니다. 본 학술포럼은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전라북도 연구용역사업(사업명 : 전북역사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제문화융성프로젝트 사업은 전북지역이 보유한 백제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자긍심 있는 역사 이미지로 제고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문화융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백제의 해양문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지역성 부각, 전북 백제의 차별화된 역사적 가치 재발견, 백제·후백제 왕도로서 문화중흥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포럼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 \* 학술포럼 발표

- 백제문화융성 정책검토 및 구상 (홍성덕 교수/전주대)
- 백제문화융성 핵심의제 도출 (곽장근 교수/ 군산대)
- 백제문화 국내외 사례 조사 (이상균 교수/전주대)
- 백제문화융성 콘텐츠 사업조사 (최희수 교수/상명대)
- 백제문화융성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 (송화섭 교수/전주대)

#### \* 토론

- 김동영 부장 (전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 문윤걸 교수 (예원예술대)
- 유철 원장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정성권 교수 (동국대)
- 최완규 이사장 (전북문화재연구원)



○ “송잔나 그리고리에브나” 교수 방문

: 지난 2016년 10월 06일(목)에 러시아 모스크바 경제대 “송잔나 그리고리에브나” 교수가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이 진행 중인 사업과 전반적 내용, 연구원 공간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송잔나 교수는 향후 연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약속하셨습니다.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10월 5일(水)에는 '호남인물 읽기'의 일환으로 『노사 기정진 연보』를, 6일(木)에는 '전북의병사료 읽기'의 일환으로 최제학의 『습재실기』를 교재로 하여,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의가 연구원 201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0월 5일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노사 기정진의 신도비문 논란 이전에 최익현이 작성한 신도비문을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10월 6일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습재실기 상권 “병오거의(丙午舉義) 일기” 가운데 4월 1일 무술일부터 4월 13일 기묘일까지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 목 18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원, 항일영상역사재단 MOU체결 (10월 8일)

: 10월 8일 오후 1시에 우리 연구원과 항일영상역사재단(원장 : 이원혁),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양 기관은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 품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황학루송맹호연지광릉) 황학루에서 맹호연이 광릉으로 가는 걸 전송하며

故人西辭黃鶴樓(고인서사황학루) 내 친구가 서쪽에 황학루 떠나

煙花三月下揚州(연화삼월하양주) 꽃피는 삼월에 양주로 내려가니,

孤帆遠影碧空盡(고범원영벽공진) 외로운 배의 아득한 그림자 푸른 하늘에 가물대고

惟見長江天際流(유견장강천제류) 다만 보이는 건 하늘에 닿은 장강 물.

###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 감 상

- 30세가 넘고 나서 이백은 현실과 이상 사이를 넘나들게 된다. 먼저 재상을 지냈던 허어사(許圜師)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다음, 정치적인 진출을 도모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진로를 모색하였지만, 그는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때 이백은 시인 맹호연을 만나는데, 그와 헤어지면서 「황학루 송맹호연지광릉(黃鶴樓 送孟浩然之廣陵)」이란 시를 짓는다.